도내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

중국 유학생 모셔오기 팔걷었다

전북대 · 전북컨소시엄 대학 5개교, 중국 운남성 곤명시 찾아 국제교류 위한 간담회

14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온실에서 연구원들이 '국산 나리 합동평가회'에 전시될 나리 꽃을 선별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위원장 윤명숙)은 전북도와 공동으로 13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운남성 곤명시를 찾아 유학생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라북도 자치행정과와 전북대를 비롯한 전북컨소시엄 대학 5개교(전북대, 원광대, 우석대, 전주대, 군산대)가 대학 안내 부스를 설치하고 유학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

특히 전북 컨소시엄은 13일 오후 전북도 협력으로 운남성 교육청과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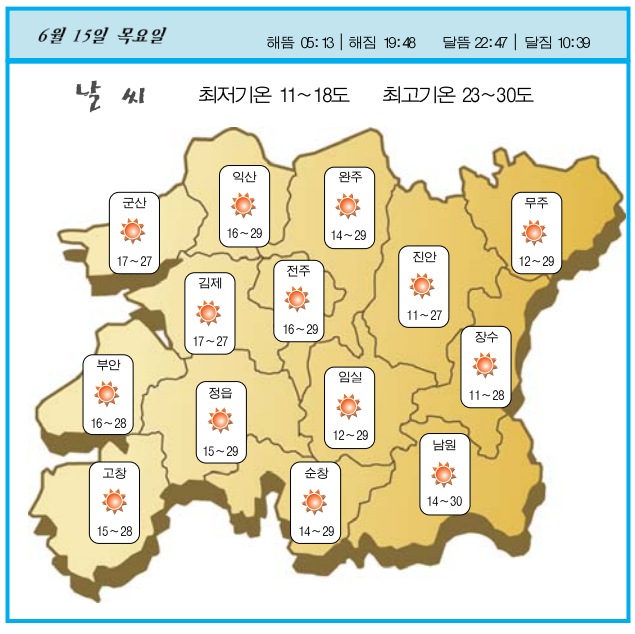
이 자리에는 윈난성 교육청 왕웬 처장을 비롯한 5개 대학(운남대, 운남사범대, 운남외사외국어직업학원, 운남여행학원, 곤명이공대학) 국제교류 관계자 14명과 전북대 국제협력부 최병식 과장 등 전북컨소시엄 대학 관계자 11명, 전북도청 이후천 과장 등이 참석해 양 지역의 대학교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전북지역 대학간 협력체계를 통한 고품질의 교육서비스와 각 대학의 주요 학과 및 장학제도 소개, 외국인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소개돼 중국 대학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 양 지역대학 간 학술교류와 교수 및 학생 교환, 공동 프로그램 개발 등 국제교류 제반사항 등도 폭넓게 논의했으며 운남성 교육청과 전북도청은 양 지역 대학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및 정기적인 교류활동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남호 총장은 "지난 3년간 지자체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구축된 전북지역의 중국 내 글로벌 네트워크가 운남성 지역으로 확대·발전되는 것에 큰 기대를 갖는다"며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을 통해 중국내 글로벌 네트워크 거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 캠퍼스, 인도 · 턱 없는 무장애 길로

옛 정문서 덕진공원 구간 캠퍼스 활용 '덕진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추진

전북대학교 옛 정문에서 덕진공원 구간 대학 캠퍼스가 장애물이 없어 휠체어 이용자 등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나눔길로 조성된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산림청 녹색자금 3억원 등 총 5억원을 들여 전북대학교 옛 정문에서 덕진공원에 이르는 500m 구간의 대학 캠퍼스를 활용한 '덕진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 누구라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전주에서 인도턱 등 장애물이 없는 무장애 나눔길이 조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시는 해당 구간에 휠체어와 유모차 등이 편리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황토 포장을 도입, 높낮이 없는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이팝나무와 산수유나무 등 수목과 초화류 30여종 1만2000그루를 식재해 시민들이 계절마다 다양한 숲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 방침이다.

이 사업은 복권기금(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기금) 지원으로 추진되는 공익사업으로, 사업 취지에 공감한 전북대학교가 시민들을 위해 캠퍼스 토지사용을 영구 승낙하면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앞서, 시와 전북대학교는 산림청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지난 2014년 전북대 신정문에 '힐링 숲'을 조성했으며, 지난해에는 전북대 신정문에서 옛 정문까지 500m 구간을 '녹색예술거리 나눔숲'으로 제공해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대학 캠퍼스를 활용해 조성된 숲은 전북대학교와 MOU를 체결해 학교에서 직접 수목과 시설물 등의 사후 관리를 맡도록 했다.

전주시와 전북대학교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들만의 공간이었던 캠퍼스에 아름다운 숲을 만들고, 이를 시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러한 사업들이 관·학 협력 사업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앞으로도 모든 시민들이 사람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도시, 사람 냄새 나는 전주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정읍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장 기관대상 청렴교육 실시

정읍교육지원청(장성열 교육장)은 13일 정읍 관내 학교장 6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기관대상 청렴교육를 실시했다.

이날 청렴교육은 청렴연수원의 주관하에 사례 위주의 상황극, 샌드아트, 청렴뮤지컬, 청렴동영상 등을 합한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여 토론을 하면서 윤리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체득했다.

교육에 참석한 학교장들은 "기존의 이론강의식 교육과는 다른 직접 참여하여 보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교육으로 청렴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다.

장 교육장은 "이번 교육이 학교장이 솔선수범하여 조직 내에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학교도서관 협력망' 확대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전북도교육문화회관은 전주교육지원청과 연계한 학교도서관 협력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그 동안 축적된 독서관련 사업을 학교와 공유를 통해 상생발전 도모하고 도서관 사서공무원의 역할 제고를 위해 '공공도서관을 빌려드려요, 학교 연계 프로그램(특색사업)'을 통해 학교도서관을 중점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학교 연계사업은 '학교도서관 이용교육', '학교도서관-공공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독서교실', '생애주기별 독서코칭 프로그램', '찾아가는 인문학 교실' 등의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학교도서관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총 34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주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학교도서관 맞춤형 업무 현장지원 사업'에 동참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심도 있는 독서교육 진행과 책을 통한 재미있는 독후활동 등을 체험하게 할 수 있고 전문 사서의 컨설팅을 통해 도서관 운영의 애로사항(도서관 운영, 장서점검 및 도서폐기, 도서전면재배열, 도서관봉사자 교육 등)을 함께 해결함으로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더불어 '2017년도 학교도서관 지원 중점학교(전주동북초등학교, 전주송천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독서문화 진흥 관련 프로그램 연계 추진', '정보공유를 통한 도서관 운영 활성화' 등을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해은기자

러시아 한국민족학교장, 특별 공개 수업 관심

오늘 근영중 학생들 대상

러시아 한국민족학교 교장이 전주 근영중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 특별 공개 수업을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엄 넬리(Nelly Em) 러시아 한국민족학교장이 오늘 오후 2시 근영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과 조은경 수석교사와 함께 '카레이스키(고려인) 강제 이주역사'를 주제로 역사 특강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역사 특강은 근영중학교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엄 넬리 교장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해 전북지사, 전주시장 등도 면담할 예정이다.

한편 엄 넬리 교장은 현재 모스크바 1086 학교 교장과 모스크바시 교육문화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민주평통자문위원회 구주 및 중앙아시아회장을 맡았었다. 2007년 러시아 정부로부터 러시아 최고애국훈장 등 다수의 상을 받았으며 2008년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정해은기자